질문은 디폴트다



서 선 미의 기후에세이

미국 중간선거가 민주당의 승리로 끝났다. 생활비와 물가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뜻밖에 크게 부각된 쟁점이 있다. 바로 데이터센터다. 데이터센터는 AI 시대의 필수적인 산업 거점인데,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이 된 것이다.

지역 주민투표에 부쳐진 데이터센터 관련 안건 중 데이터센터 개발을 제한하거나 반대하는 쪽이 대부분 승리했다. 물론 이 모두가 신규 건설 금지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아니다.

주지사 선거는 더욱 주목받는 지점이다. 텍사스와 오하이오, 조지아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 후보를 꺾고 주지사에 당선됐다. 이들 선거에서도 데이터센터의 전력·용수 소비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기술경쟁보다 더 절실하게 다가왔던 것은 치솟는 전기요금과 물 부족,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우려였다.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전력망의 안정성 문제로 2021년부터 데이터센터 전력망 연결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2022년 전력 수급 제약을 이유로 광역 더블린 지역의 신규 데이터센터 연결을 당분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네덜란드에서는 2022년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가 초대형 제이볼더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을 철회했다.

우리를 돌아본다. 올해 5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이 법은 내년 3월 10일 시행된다. 불과 넉 달 뒤다. 인허가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제도, 법정 처리기간 안에 거부 통지가 없으면 인허가가 된 것으로 간주하는 타임아웃제, 국가가 전력·용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비수도권에 짓는 AI 데이터센터는 일정한 요건과 범위에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특례도 마련됐다.

정부는 6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발표했다. AI 데이터센터는 총 18.4GW 규모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일부 화석연료 발전원을 조화롭게 활용하고 송전망과 전력 저장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센터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도 추진한다.

AI 데이터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막대한 전력과 물을 소비하고, 지역의 토지와 기반시설을 사용하는 산업 인프라다. 따라서 투자 규모와 건설 속도만으로 성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지, 전기를 무엇으로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지역에 생기는 일자리는 몇 개인지, 그 편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구체적인 방식과 숫자로 제시해야 한다. 국민과 지역주민이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먼저 겪은 나라들이 던진 질문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전기와 땅과 물은 공공성이 큰 자원이다. 일자리, 경제적 편익을 포함한 이 모두가 지속가능해야 한다.

질문은 옵션이 아니라 디폴트다.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좌표다. 질문을 생략한 채 속도만 앞세운다면 그 대가는 지역주민과 미래 세대가 함께 짊어지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과 지역주민에게, 국민과 지역주민은 정부에게 질문을 던지며 '착하고 옳은 성장'의 길을 함께 열어가야 한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정책전문위원

증권사 해킹 사과문에 없는 숫자



기자 수첩 허 정 윤 〈자본시장부〉

증권사에서 해킹 사고가 나면 먼저 확인하는 게 피해 규모다. 몇 명의 정보가 유출됐는지, 이름과 전화번호가 빠져나갔는지, 계좌번호도 포함됐는지 따진다. 증권사가 평소 이 정보를 지키는 데 얼마를 쓰고 인력을 얼마나 배치했는지는 공개 자료로 확인하기 쉽지 않다.

지난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올해 정보보호 공시를 보면, 국내 30여개 증권사 가운데 보안 투자액과 전담 인력 규모를 공개한 곳은 10곳이었다. 이 가운데 공시상 전담 인력이 50명을 넘는 곳은 한 곳, 10명 미만인 곳은 두 곳이었다.

전담 인력 규모만으로 회사의 보안 수준을 판단하긴 어렵다. 다만 최근 사고를 보면 증권사에서 관리해야 할 곳이 얼마나 다양한지는 알 수 있다. 대신증권에선 외부 업체와 연결된 비대면 계좌개설 서버가 공격받았다. 한양증권에선 사내 그룹웨어가, 미래에셋증권에선 그룹웨어와 모바일웹 로그인 서비스가 공격받았다. 외주업체가 관리하는 서버에서 취약점이 발견됐을 때 누가 고치고, 누가 수정 여부를 확인하는지도 증권사가 챙겨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금융회사 약 580곳을 전수점검하고, 대형사부터 취약점 평가를 연 두 차례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내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도록 한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외부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하면 취약점을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외부 연결을 새로 허용할 때는 그 경로를 통해 고객 정보에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점검에서 발견한 취약점도 수정 기한을 정하고 실제로 조치했는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AI가 새벽에 이상 징후를 찾아내면 경보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접속을 차단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 자체 인력으로 야간 대응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형사에는 금융보안원의 공동 관제와 기술 지원을 넓힐 필요가 있다. 증권사도 경보가 들어오면 누가 판단하고 누가 차단할지 미리 정해둬야 한다.

아울러 국회에선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총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심사 중이다. 보안 의무를 소홀히 한 회사에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 책임을 따질 때는 사고 전에 회사가 무엇을 했는지도 봐야 한다. 이미 발견한 취약점을 제때 고쳤는지, 외주 서버까지 관리했는지, 이상 징후가 포착됐을 때 곧바로 대응할 체계를 갖췄는지가 판단의 근거가 돼야 한다.

증권사는 보안 투자액과 전담 인력 규모부터 정기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새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보안 인력과 예산을 어떻게 배치했고, 점검에서 발견한 문제를 얼마나 개선했는지 고객에게 설명하는 것도 경영진의 책임이다. 고객이 그 답을 듣기 위해 다음 해킹 사고를 기다려야 할 이유는 없다.

/zelkova@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0일 (음 10월 2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주변 사람들과 다투지 마세요. **60년생** 맞지 않는 일에 어쩔 수 없이 관여하게 되니 마음만 아픕니다. **72년생**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세요. **84년생** 손실만 있고 이득은 없습니다.



49년생 천 번이든 만 번이든 참으세요. **61년생** 중심을 잃지 마세요. **73년생** 집안에 혼사 있겠으나 상대방이 까다로워 고민입니다. **85년생** 끝내 이룰 것이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50년생 할 일은 많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62년생** 후배들과 어울리기 힘듭니다. **74년생** 친한 친구와의 금전 거래는 금물입니다. **86년생**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마세요.



51년생 쓸데없는 접대는 낭비입니다. **63년생** 힘들어도 꼭 이루어지니 기뻐하세요. **75년생**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87년생** 지나친 당신의 오랜 끈기와 인내가 결실을 보게 됩니다.



52년생 평소 하던 방식을 변경하지 마세요. **64년생** 실패 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76년생** 서두르지 마세요. **88년생** 연락이 끊겼던 친구에게 연락이 오니 기분 좋게 받아주세요.



53년생 속전속결로 처리하면 후회가 따릅니다. **65년생** 좋은 소식을 접 할 수가 보입니다. **77년생** 친구나 동료간에 사소한 다툼이 생깁니다. **89년생** 가족 나들이에 가정이 화락합니다.



54년생 뜻을 이루려 하는데 누군가 음해하려 합니다. **66년생** 운대가 좋지 못합니다. **78년생** 계약이나 매매는 다음 날로 미루세요. **90년생** 시험의 합격이나 취직은 아직 이릅니다.



55년생 한해 중 가장 운이 좋은 날입니다. **67년생** 재는 크고 이롭고 관은 성공합니다. **79년생** 크게 일어나게 되니 조금만 더 버티세요. **91년생**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이심이 좋습니다.



56년생 명예가 오르는 하루입니다. **68년생** 부부, 이성과의 갈등의 풀리고 기분이 좋습니다. **80년생** 가족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있겠습니다. **92년생** 친구들과 만나면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57년생 밖으로 나아가세요. **69년생** 동북 양방에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입니다. **81년생**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길합니다. **93년생** 오늘 하루 주변사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58년생 모든 것이 길한 좋은 날입니다. **70년생** 직장내에서 승진운이 있습니다. **82년생** 대중교통 이용에 주의하세요. **94년생** 건강하던 사람이 아프면 병이 오래 갈수가 있습니다.



59년생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71년생** 오늘은 체력적으로 힘든 하루입니다. **83년생** 모든지 양보하면 길합니다. **95년생**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김상회의 四季

금선탈각

폭염이 심한 한여름에 나무 기둥을 보면 비어있는 매미 껍질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매미라는 실체는 빠져나가고 껍데기가 나무 기둥을 붙잡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 병법 삼십육계 중 하나인 금선탈각金蟬脫殼은 바로 이런 자연 현상에서 유래했다. 매미가 허물을 벗고 빠져나간다는 뜻으로, 겉보기에는 기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체만 빠져나가는 전략을 의미한다. 금선탈각은 잇달아 은퇴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인생 전략이 아닐까 싶다.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생활에 중요한 것들이 있다. 학벌 직장 직위 등이 그런 것들이다. 사회생활을 할 때는 발판이 되어주고 도약대가 되는 것들이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서도 거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제는 전혀 필요 없는 학벌과 전 직장과 옛날 직위를 내세우려고 한다.

금선탈각은 이러한 관념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미 쓸모없어진 낡은 껍질을 붙들고 있느라 새로운 가능성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 금선탈각은 은퇴 이후에 새로운 출발의 방법으로 삼기에 좋은 전략이다. 직장생활을 끝냈으면서 과거의 직함과 직위만 쳐다본다고 생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허탈함만 심해질 뿐이다. 그런 때는 전직의 껍질을 과감히 벗어던져야 한다. 옛날의 누구라는 껍질을 벗고 새로운 시장의 새로운 사람이라는 새로운 실체를 만들어야 한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금선탈각의 지혜는 더욱 중요해진다. 평생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일, 기존과 전혀 다른 직업을 구하는 일, 필요 없는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일이 모두 예전의 껍질을 벗는 과정이다. 남겨놓은 허물은 과거의 흔적일 뿐이다. 인간관계에 쓸데없는 껍질을 벗어야 할 때가 왔다면 벗어던져야 한다. 그 껍질은 지나가 버린 과거의 흔적일 뿐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한뒴 스도쿠365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6				1				9
		2	8		3	4		
	1						6	
	6		5		9		2	
5				3				7
	9		4		7		5	
	3						8	
		7	2		6	9		
4				9				2

		4		2	5	8		
		5			8			7
	7							
		7	2	3	9			5
		8				2		
4			8	5	1	6		
							6	
2			4			3		
		3	5	6		7		

할인도서

2	7	1	8	9	3	6	5	4
3	4	9	6	5	2	7	8	1
6	8	5	4	7	1	9	3	2
1	5	6	7	2	4	3	9	8
7	9	8	1	3	6	4	2	5
4	2	3	9	8	5	1	6	7
9	1	4	2	6	8	5	7	3
5	6	2	3	4	7	8	1	9
8	3	7	5	1	9	2	4	6

1	4	7	2	6	5	3	8	9
8	9	3	7	1	4	6	5	2
2	6	5	3	8	9	1	4	7
9	3	8	1	5	6	4	2	7
5	1	2	4	9	7	8	3	6
4	7	6	9	2	3	5	1	8
3	2	9	8	4	1	7	6	5
6	8	4	5	7	2	9	3	1
7	5	1	6	3	8	2	9	4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31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35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